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

- 살전 1 : 5-7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 centered on 1 Thessalonians 1:5-7-

임영호 _ 신학박사, 고신대학교 신학과교수
Prof. Dr. Young Hyo Im

목차

1. 서론(Introduction)	105
2. 교육자의 교육의 내용(Educator's Content of Teaching)	106
3. 교육자의 전달 방법(Educator's Communication)	113
4. 교육자의 행위(Educator's Conduct)	119
5.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The Ultimat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121
6. 결론(Conclusion)	125

주요어 | 기독교 교육, 복음, 성령, 능력, 확신, 행위, 교육명령

요약문 |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모든 문화와 상황에 적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실천되어졌고,

확증되어진 것이다.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성경주해 교수인 로이 주크(Roy B. Zuck)박사는 그가 쓴 "성령 충만한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본문 1장 5절의 말씀이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살전 1장 5절은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사역에 있어서 따라야할 패턴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Content)(우리 복음, 말씀), 교사의 전달하는 방법(Communication)(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교사의 행위(Conduct)(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구비되어지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3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의 교육 내용과 교육자의 전달 방법과 교육자의 삶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 질려면, 교육 내용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사에게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 들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체험적인 진리가 되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

둘째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적절한 복음전달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능력과 성령과 충만한 확신이다. 성령이 가운데 위치해 있으므로 능력과 충만한 확신의 수여자가 되어지고 근본동인이 되어짐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교사의 삶이 그가 가르치는 복음과 일치되어질 때 가능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배우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먼저 가르치는 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관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는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교육자들은 자신의 삶이 복음 메시지에 부합되는 삶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가운데 신중하게 자신의 삶의 내용과 스타일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7절은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영적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르치는 교사의 인격과 삶을 본 받은 후에, 마침내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는 온전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결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 지역의 신자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까지 회심의 결실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방편이 되어지기에 이 원리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임영효교수

고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에서 복회학석사(M.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Miss.)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신교대학원 교회성장학 주임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쿰란출판사), 「성경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연구」(도서출판 영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역자」(도서출판 영문), 논문으로는 「기독교 대학과 영적 성장」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대한 고찰」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영적 지도력과 사역개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등 다수가 있다. yhim@kosin.ac.kr

*Abstract**A Study on the Principle of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centered on 1 Thessalonians 1:5-7**by Prof. Dr. Young Hyo Im*

1 Thessalonians 1:5 shows the principle of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that is always best in every culture and situation. It was testified and confirmed by Apostle Paul' cross-cultural missionary work. Roy B. Zuck says as follows: "Every teacher should so live and teach that he can testify as did the Apostle Paul concerning his ministry among the Thessalonians: 'Our Gospel came to you not simply with words, but also with power,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deep conviction. You know how we lived among you for your sake' (1Thes. 1:5). This verse outlines the pattern that every teacher should follow in his teaching ministry. The teacher' s content('our Gospel,' the word), the teacher' s communication('with power,' 'with the Holy Spirit,' 'with deep conviction') and the teacher' s conduct('how we lived among you') are all important. What a teacher teaches, how he teaches, and how he lived should harmonize to make his ministry spiritual and dynamic."

First,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requires that the content should be Gospel, that is, the word of God. The simple identification of their message as "our Gospel" expresses Paul' s deep conviction that the message of Christianity was truly a message of Good news and they had personally accepted as the

truth of salvation. Therefore, Christians teachers should know the Gospel, that is, the whole will of God rightly. H. L. Menken has properly stated when he said that "a man who knows a subject throughly, a man so soaked in it that he eats it, sleeps it and dreams it-this man can always teach it with success, no matter how little he knows of technical pedagogy."

Second,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requires that there should be a meaningful communication. To deliver the word of God effectively there should be three elements, that is, power, the Holy Spirit, and deep conviction. Being placed between the power and the deep conviction, the Holy Spirit was the agent who empowered the message and worked the assurance in the messengers. So, This verse testifies that the efficacy of the word of God depends on the Holy Spirit' s work. Ronald S. Wallace states that "the Word of God can have no efficacy unless at the same time the Holy Spirit works in the hearts if the hearers, creating faith and making men' s minds open to receive the Word."

Third, effective Christian education requires that teachers' conduct should be manifestly consistent with the Gospel which they teach. In this verse, Paul asked the Thessalonians to recall "how we lived among you for your sake." Paul and other fellow workers well known that "a message designed to change its hearer' s lives would lack all effectiveness if the preachers' conduct was manifestly inconsistent with it." As Benson has reminded Christian teachers, "The example of a consistent Christian life counts more toward helping others reach a higher standard any amount of instruction." Thus, the Apostle Paul advised his disciple Timothy as follows: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Persevere in them, because if you do, you will save both yourself and your hearers" (1Tim. 4:16). This third element testifies that among

three models of learning, non-formal learning is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part for learners.

In conclusion, 1 Thess 1: 6-7 shows us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mature every Christian in Jesus Christ.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also to make mature disciples of Jesus among all nations for world evangelization(Matt 28:19-20).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Gospel, the Holy Spirit, Power, Conviction, Behaviour, Educational Commission

1. 서론(Introduction)

오늘 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효과적인 교회교육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교회마다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보기도 하지만, 기대했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좌절을 느낄 때가 적지 아니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교육의 현실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셨다. 특별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기독교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야함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교회교육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속에 포함되어질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효과적인 제대로의 교육을 위한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침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성경주해 교수인 로이 주크(Roy B. Zuck)박사는 그가 쓴 「성령 충만한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본문 1장 5절의 말씀이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는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이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이 구절은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사역에 있어서 따라야 할 패턴을 요약해 주고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Content)(우리 복음, 말씀), 교사의 전달하는 방법(Communication)(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교사의 행위(Conduct)(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법, 교사의 삶의 모습(행위)이 조화를 이루어 그의 사역을 성경적이고 활기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3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의 교육 내용과 교육자의 전달 방법과 교육자의 삶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교육자의 교육의 내용 (Educator's Content of Teaching)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가르치는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Roy B. Zuck, *Teaching with Spiritual Power*, (Grand Rapids: Kregel Pub., 1993), p. 104.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페리 G. 다운즈(Perry G. Downs)박사는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자신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여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비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교육 프로그램은 이 초점을 잃고 있다. 당면한 욕구에 응답하기 위해 고안된 내용은 있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등한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쉽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신학은 많은 사람들과 무관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그들의 삶은 패배한다. 믿음에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이단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한다. 교회가 믿음의 내용을 전파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오늘날의 초점을 잃은 교육의 상황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래서 페리 G. 다운즈 교수는 제대로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영적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은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의 교회 교육 경향은 성경과 신학에서 벗어나

2) Perry G. Downs, *Teaching For Spiritual Growth: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학개론), 엄성욱 역, 은성, 1998, pp. 44-45.

‘삶의 문제들’과 욕구지향적인 경로를 향하고 있다. 그것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주제와 문제들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제공된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다.³⁾ 그러므로 참으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충실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토니 브룩 스쿨 대학장인 브루스 록커비(Bruce Lockerbie)는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바 있다: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실제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성경을 가르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조직신학의 개요나 교리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⁴⁾

효과적인 성경교육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칠 본문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켄(H. L. Mencken)은 “주제를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 주제에 푹 빠져서 그것을 먹고, 함께 자고, 그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교수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제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⁵⁾ 제롬 S. 브루너(Jerome S. Bruner)도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흥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교사가 일차

3) Ibid., p. 104.

4) Jim Wilhoit and Leland Ryken, *Effective Bible T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p. 23.

5) Ibid., p. 67.

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가르칠 본문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⁶⁾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을 믿는 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주님을 믿는 자도 함께 부활하였으며,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믿는 자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예수님이 만 왕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모든 불행에서 건져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위에 임하였고, 현재에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되신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 하여 죽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금년을 A. D. 2006년이라고 하는 것은 Anno Domini “주님의 해” 즉 “주님이 다스리시는 해” 2006년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을 믿든지 안믿든지 간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서 력기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있는

6) Ibid.

분이 어떤 인간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 내용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왕 되시고 구주 되신 주님의 특별한 다스림과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을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믿는 자를 영원한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구원의 축복을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복음이 시간마다 선포되어지고 가르쳐 질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본래적인 복음을 생생하게 접하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쳤던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6장 34절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 대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부정적인 왜곡된 삶의 시각과 삶의 잘못된 습관과 미신과 두려움과 불행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할 성경교사들은 효과적인 교회교육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살전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 자신들이 고안해 낸 그런 복음이라는 뜻에서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 전파자들의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진리로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요, 메시지였다는 뜻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 일행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은 먼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으

7) D. Edmond Hiebert,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p. 56.

로서 자신들이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뜻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할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사역자가 그 복음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그것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어질 때, 그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효과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인 진리가 되어졌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진 그런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의 삶에 이 복음을 온전히 적용하고 체험하는, 이런 복음의 내면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⁸⁾

원문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갔다”가 아니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다. 복음 전달자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나 사역자 자신이 청중들에게 부각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교사나 사역자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역동적인 능력이 되어짐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역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8) Leon Morris는 “설교자는 구세주의 속죄사역을 통한 구원을 자기 나름대로 체험함으로써만이 진리를 말하고 자기 자신의 것이 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59, p. 57).

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 복음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세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전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혹은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살전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먼저 복음은 인간의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선택되어진 단어들로서 전달되어질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절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3. 교육자의 전달 방법 (Educator's Communication)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교사가 사용해야하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전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가르치는 교사가 복음 즉 하

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을 효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때에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살전 1장 5절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3 요소들 중에, 성령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아 성령이 능력과 큰 확신을 부여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⁹⁾

첫 번째 요소인 “능력”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즉,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경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¹⁰⁾ 로널드 월레스(Ronald Wallace)는 “성령이 듣는 이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받아들일도록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성령의 사역에 따라 양육대상자의 마음에 말씀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언급한바가 있다.¹¹⁾

또한 이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

시는 능력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다. 성령님이 부여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고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부여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떤 고난도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이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떠한 근거없는 잘못된 비난이나 경멸이나 반대를 용서로 이기는 능력이며, 복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거절하는 능력이고, 자기가 죽어지는 별세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페리 G. 다운즈(Perry G. Downs)박사는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와 효과적인 예배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신자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들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¹²⁾라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언급을 한바가 있다. 마가복음 6

9) Hiebert, op. cit., p. 58. David J. Williams는 “본문의 성령에 관사가 없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성령은 능력과 깊은 확신의 원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1 and 2 Thessalonian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2), p. 29.

10) John Murray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이 그의 모든 국면에서 복음의 유효성이 드러나는 효력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73), p. 213.

11)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7), pp. 128-129.

12) Perry G. Downs, op. cit., p. 43.

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페리 G. 다운즈 교수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기독교 교육은 교회가 행하는 가장 공훈한 사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교육이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다.¹³⁾

이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배우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독교 교육자들은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져야만 한다.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한 후에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친 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제대로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 자신에게 (1)사람을 향한 열정, (2)진리를 향한 열정, (3)연구와 학습을 향한 열정, (4)배운 것을 함께 나눌려는 열정, (5)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할려는 열정, (6)하나님을 향한 열정 등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독교 교육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 수 있어야 한다.¹⁴⁾

13) Ibid., p. 41.

14) Jim Wilhoit and Leland Ryken, op. cit., pp. 69-71.

세 번째 요소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 자신에게 “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전 1장 5절이 가르쳐 주고 있다. 5절의 “큰 확신”은 “완전한 확신”, “충만한 확신”을 뜻하는 말로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가졌던 확신을 의미하고 있다.¹⁵⁾ 이 확신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는 뜻이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확신, 복음 메시지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더 나아가, 사역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 주셨다는 확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 “확신”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의심이나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그 어떤 의심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사역에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의심이 있을 때에 그 사역에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고, 도리어 의심을 가지고 또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에 임한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은

15) F. F. Bruce는 데살로니가인들이 가진 내적 확신으로 보지만 William Hendriksen과 Leon Morris는 사도 바울 일행이 가졌던 전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F. F. Bruce, *1 & 2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1982, p. 14.; William Hendriksen, *Exposition of 1 and 2 Thessalonians*, 1955, p. 51.; Leon Morri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1959, p. 57).

16) James Denney,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in *An Exposition of the Bible*, Vol. 6, (Hartford, Conn.: The S. S. Scranton, 1903), p. 321.

결국 그 사역을 약화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의심이 있고 평안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마음속에 충만한 확신을 부어 주시므로 효과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페리 G. 다운즈(Perry G. Downs)박사는 “성경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성경 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성경이 진리인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내용 중 하나인지 의심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지도하여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확신을 가진 교사는 자신있게 성경의 원리들과 메시지를 선포한다.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교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권위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깊은 확신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있다.¹⁷⁾

4. 교육자의 행위(Educator's Conduct)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3번째 원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 자신의 삶이 복음 진리에 부합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전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이는 바와 같으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부분의 말씀을 여차적으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자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귀중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즉 사역자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그 사역자의 삶이 일치되어질 때에 그 사역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말로 가르치는 진리만큼이나 교사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배우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먼저 가르치는 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참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능력과 성령과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위대한 목회자요 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먼저 변화시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청중들의 삶도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17) Perry G. Downs, op. cit., pp. 226-227.

이었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 자신의 삶이 그 메시지와 일치되어지지 못한다고 할 때, 사역의 모든 효과가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일행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온전한 결실을 위하여 복음 메시지에 부합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일행의 삶은 복음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범적인 삶이었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므로 청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영국의 주경 신학자인 브루스(F. F. Bruce) 역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이전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질 그 지역 사람들이 행위 속에서의 기독교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에 그 복음을 가져왔던 자들의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설교자들은 이 책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복음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그리스도인에서의 삶(고전 4:17)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사역자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¹⁸⁾ 벤슨(Benson)도 “일관된 크리스찬의 삶의 본보기는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말씀의 교육자들은 자신의 삶이 복음 메시지에 부합되는 삶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가운데 신중하게 자신의 삶의 내용과 스타일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18) F. F. Bruce, *1&2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5,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2), p. 15.

19) Clarence E. Benson, *The Christian Teacher*, (Chicago: Moody Press, 1950), p. 50.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의 수제자 디모테에게 권면하기를 디모테전서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Persevere in them, because if you do, you will save both yourself and your hearers)(딤후 4:16)고, 영적 교사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에 함께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므로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기독교 교육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교육에 소명을 받은 교사들은 기억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5.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The Ultimat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그러면 이상과 같은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이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페리 G. 다운즈(Perry G. Downs)박사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²⁰⁾ 임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살전 1장 6절과 7절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20) Perry G. Downs, op. cit., p. 22.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의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을 본받게 되는 영적 성숙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 반도 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본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바 “도를 받아”²¹⁾ 라는 부분인데 이를 원문상으로 번역하면 “그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임으로”라고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말씀의 양육의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임으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사들은 사역 대상자들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소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자체를 사역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어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사역의 결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어

진 성숙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중적인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즉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에서 그들은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주님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적 성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르치는 교사의 인격과 삶을 본받은 후에,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는 온전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는 교사라는 존재가 교육 대상자들의 영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교사의 모범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리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본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주를 본받게 되어진 것으로, 여기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1) 거룩함(벧전 1:15-16)과 (2) 사랑(마 5:43-48, 눅 6:36, 요 13:34, 15:12)과 (3) 고난(마 16:24-25, 막 10:38-39, 눅 14:27, 요 15:18-20, 벧전 2:18-21)의 영역에서 주를 본받게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이 세 가지 영역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나타나지고 있는데 거룩함에 관해서는 살전 3:13, 4:3,7, 사랑에 관해서는 살전 3:12, 4:9-10 그리고 고난에 관해서는 살전 2:14, 3:2-4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²³⁾ 달리 말한다면, 여기에 주를 본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갈 5:22-23)를 그 삶 속에서 풍성히 맺게 되었다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빌 2:5)는 의미일 것이다.

21) 원문에서 “받아”라는 단어는 “dechomai”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언급도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받는다(receive)는 뜻으로는 “lambano”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22) Robert L. Thomas, *1 Thessalon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1,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p. 245.

23) Ibid.

테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성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살전 1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나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²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 받을만한 모델(model)이 되었다는 것으로 최상급의 칭찬과 인정의 표현이다. 사실 그 지역전체의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으로 쉽지 아니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세상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탁월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테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살전 1장 8절에서 보여주는 바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수행에 앞장을 설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결과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적인 사명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 결론(Conclusion)

기독교 교육은 교회가 고안하고 만들어 낸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주권자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마 28장 19-20 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 나가야 하는 위대한 교육명령(The Great Educational Commission)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역이다. 이런 성격을 지닌 독특한 사역이라고 할 때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 또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제시되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수많은 원리들과 방법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에서 이탈되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 성경적 원리를 보다 적용해 나가는 구체적인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은 명심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살전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귀중한 본문으로 취급되어지고 연구되어져야 한다.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사들도 단순한 지식전달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양육받는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로 이해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의 모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양들의 삶의 질을 변화

24) 여기에 “모든”이라는 표현은 그리스 북부 마케도나와 남부 아가야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케도나 지방에 테살로니가, 빌립보, 페뢰아 도시들이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 아덴, 고린도와 같은 도시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의 모든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것으로 최상급의 칭찬과 인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삶²⁵⁾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역의 목표였던 것을 보여주신 것 처럼, 오늘날의 교회교육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로서 사역의 귀한 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결실이 풍성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원리와 그 방법들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사역에 확대 적용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에 오늘날의 교육사역의 현장에서도 그 때와 같은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고, 영적 성숙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교육사역의 결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신 주님의 선교명령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 낼 수 있도록 이 어두움의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크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 낼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할 영적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일 것이다.

25) 이 삶은 승리하는 삶, 변화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주님께 드러지는 삶,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 평강의 삶, 안식하는 삶으로 주님의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지는 삶을 의미한다.

Bibliography

- Benson, Clarence E. *The Christian Teacher*, Chicago: Moody Press, 1950.
- Bruce, F. F. *1 & 2 Thessalon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 Word Books, pub., 1982.
- Denney, James. "The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in *An Exposition of the Bible*, Vol. 6. Hartford, Conn.: The S. S. Scranton, 1903.
- Downs Perry G. *Teaching For Spiritual Growth: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학개론), 엄성옥 역, 은성, 1998.
- Hendriksen, William. *Exposition of 1 and 2 Thessalon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5.
- Hiebert, D. Edmond.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 Morris, Le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59.
- Murray, Joh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73.
- Thomas, Robert L. *1 Thessalon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1.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7.
- Wilhoit Jim and Leland Ryken. *Effective Bible T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 Williams, David J. *1 and 2 Thessalonian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2.
- Zuck, Roy B. *Teaching with Spiritual Power*, Grand Rapids: Kregel Pub., 1993.